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유성렬(백석대학교 ·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4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4년 동안 나타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실태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음.
-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유무의 변화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효과의 변화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의 변화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특성의 변화

3. 연구결과

- 첫째,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유무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적어도 1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3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직업성숙, 학업성적,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직업성숙 등 진로교육적 효과보다는 지위비행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아르바이트 참여의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1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횟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보다는 한두 가지의 아르바이트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함.
- 넷째, 아르바이트 참여직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응답자들의 약 80%가 전단지 돌리기를 참여직종으로 응답했으나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8.3%로 현격하게 감소한 반면, 음식점 등에서의 카운터/서빙/배달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5%정도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남녀 각각 48.4%, 65.7%로 나타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이 직종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섯째,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시기에 72.6%에 달한 반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32.1%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21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15.9%에 불과하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거의 3배에 달하는 57.3%로 급증하여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이르면서 성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 근사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여섯째, 아르바이트 임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시간당 2,000원 이하를 받은 학생이 37.5%인 반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6.9%로 감소하였음. 반면에 시간당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임금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학교 2학년 시기에 7.6%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무려 45.7%로 증가하였음.
- 일곱째,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대우 경험을 살펴보면, 총 9가지의 부당

경험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7.6%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24.5%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과 관련한 부담 경험은 1차 조사에서 모두 22.8% 수준이었으나 고등학교 4차 조사에서는 19.4%로 소폭 감소하였음.

- 여덟째,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로 오면서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제언

- 1) 학업과 일의 관계정립에 대한 청소년·교사 교육 전개 :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전단지 돌리기 중심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서 음식점 서빙 중심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으로 변화하면서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경험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 친구관계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면서 아르바이트에는 진로준비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학교생활과 일의 관계설정에 대한 적절한 교육전개가 필요함. 첫째, 노동교육원, 일반교사 연수과정 등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학업과 일의 적절한 관계정립에 대한 교육 실시. 둘째, 직업관련 교과교육시간이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청소년들의 학업과 일의 적절한 관계정립에 대한 교육 실시.
-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의 개선 강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 인권 침해 등의 부담

대우 경험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첫째, 사업주대상 지도점검의 강화. 둘째, 교사, 청소년, 사업주 대상 청소년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인지도 제고의 강화. 셋째, 교사, 청소년, 사업주 대상 법정 근로조건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구제의 강화.

- 3) 성장단계별 건전 아르바이트 업종 공급의 강화 :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직업성숙 등 진로교육적 효과보다는 지위비행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이 전단지 돌리기, 음식점 서빙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열악한 업종에 국한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첫째, 정부가 성장단계별 청소년들이 참여할만한 건전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업종들에게 정부가 세제혜택 등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업종들이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함.

- 4) 학교 진로교육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진로교육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학교 진로교육의 틀 속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학교 진로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이뤄지고 있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의 진로탐색 및 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직업탐색부분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르바이트 체험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진로탐색 및 준비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3
II. 이론적 논의	9
III. 분석자료	15
IV. 분석결과	23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25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효과	28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	33
4.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특성	36
V. 결론 및 정책제언	59
1. 연구의 요약	59
2. 정책적 제언	61
참고문헌	66

표 목차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17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18
<표 III-3> 중2 패널 4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19
<표 IV-1> 각 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자료 분석 포함 여부와 관계	24
<표 IV-2>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N=2,910)	25
<표 IV-3> 4년간 아르바이트 참여 지속 여부	26
<표 IV-4>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직업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9
<표 IV-5>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흡연)	31
<표 IV-6>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음주)	32
<표 IV-7>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33
<표 IV-8> 시기별 1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35
<표 IV-9> 시기별 아르바이트 직종	37
<표 IV-10> 시기별 아르바이트 시작 시점	40
<표 IV-11> 시기별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43
<표 IV-12> 시기별 일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한 일수	45
<표 IV-13> 시기별 일일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	47
<표 IV-14> 시기별 아르바이트 시간당 임금	48
<표 IV-15> 시기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51
<표 IV-16> 시기별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경험 실태	53

그림 목차

<그림 IV-1> 4년간 아르바이트 참여 변화 추이	26
<그림 IV-2> 4년간 아르바이트 참여 지속 여부	27
<그림 IV-3> 시기별 1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변화(유경험자 전체)	36
<그림 IV-4> 아르바이트 직종 변화 추이	38
<그림 IV-5>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기	40
<그림 IV-6> 각 시기별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의 변화 추이	44
<그림 IV-7> 주당 아르바이트 작업 일수의 변화 추이	46
<그림 IV-8> 일일 근무시간의 변화 추이	47
<그림 IV-9> 시간당 임금의 변화 추이	49
<그림 IV-10> 아르바이트 시작 이유의 변화 추이	52
<그림 IV-11>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대한 아르바이트의 영향 인식의 변화	55

I. 서론

I. 서론

최근 한국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입시위주의 사회적 상황하에서도 용돈마련의 목적에서 아르바이트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철위 외, 2000; 유성렬, 2005; 이경상외, 2005). 중고등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여가시간을 갖는 것 외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현상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떠한가?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이 직업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교의 재량활동시간이나 청소년단체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업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함께 짬짬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여 제한적이거나 직업세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ortimer & Finch, 1986; Pimenel, 1996; 장원섭, 1999).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직업관련 경험의 축적, 직업의식의 발달, 사회적 관계경험의 축적 등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가 주는 함의에 따르면,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준비에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로발달이외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그리 권장할만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동시에 엄연히 존재한다.

실제로 기존의 국내외의 여러 다른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진로발달이외의 다른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Greenberger and Steinberg, 1986; Steinberg and Dornbusch, 1991; 문성호, 2003; 김기현, 2003).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학업소홀, 문제행동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가 주는 함의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일정정도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준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학업이나 문제행동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의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참여환경이 나쁜 상황에서는 진로탐색 및 준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소홀, 문제행동 등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두 입장의 연구결과가 주는 함의를 종합해서 보면, 아르바이트 참여 청소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소홀, 문제행동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 진로탐색 및 준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문제행동, 직업성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문제행동, 직업성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아르바이트 참여 청소년들에게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설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령,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청소년들의 학업소홀, 문제행동 등의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직업성숙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은 없애고 긍정적인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연령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즉, 참여시간, 직종, 임금, 부당대우 등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청소년

년들의 연령별, 학령별 성장에 맞는 적절한 아르바이트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문성호, 2003; 김기현, 2003, 이경상 외, 2005).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가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학업성적, 학교부적응 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들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이철위 외, 2000; 이형하·이용교, 2002; 이광호, 2001).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참여정도, 직종, 시간, 임금, 부당대우 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환경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현상의 실태와 효과를 선구적으로 파악하여 실제로 한국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및 지원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횡단적 자료에 의존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거나 성장과정에 따른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종단적 변화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중학교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4차년도, 즉, 중2-고2까지 축적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연령단계별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청소년들의 연령단계별 성장과정에 따른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종단적 특성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II. 이론적 논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와 관련하여 진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첫째, 청소년들의 얼마 정도가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있는가 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의 정도에 대한 관심, 둘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효과에 대한 관심, 셋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참여환경(참여정도, 직종, 참여시간 및 지속기간, 임금, 부당대우 등)의 특성에 대한 관심의 셋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의 정도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횡단적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대체로 한국 청소년들의 약 30% 정도가 1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철위, 2000; 김기현, 2003).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횡단적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참여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참여에 그치는 지 등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의 종단적 변화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와 처한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9학년(중학교 3학년)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변화추이에 대해 분석한 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9학년 40%에서 12학년 58%로 증가하고, 여학생들도 9학년 63%에서 12학년 7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nch, et al., 1997).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종단적 패널자료가 희귀했던 관계로 별다른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연구자들의 두 번째 주된 관심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문제행동, 진로의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가 진로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경혜(2000)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경제관념 및 성취감 획득, 대인관계, 시간관리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정경은·이혜경(2005)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진로성숙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성호(2003)는 주당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박창남(2006)도 일의 유형과 노동강도가 지위비행 등 청소년들의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가 학업성적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김기현(2003)은 주당노동시간이 학교성적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 바가 있고, 김예성(2007)은 주당노동시간, 노동부담, 스트레스적 노동경험이 노동학업간 갈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바가 있다. 이들 연구들도 김기현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효과의 종단적 변화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연구자들의 세 번째 관심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환경(참여정도, 직종, 참여시간 및 지속기간, 임금, 부당대우 등)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이들 관심은 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직종, 참여시간 및 지속기간, 임금 및 부당대우의 셋으로 크게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세부적인 관심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직종, 즉, 하는 일의 성격이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의 직종은 청소년 직업가치의 내재적, 외재적 효과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Mortimer et al., 1994). 이철위(2000)와 유성렬(2005)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대표적인 직종이 전단지 돌리기라는 점을 밝히고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직종의 특성 및 성격을 연구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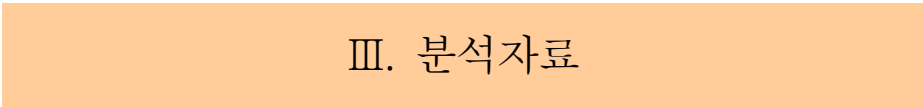
다음으로 두 번째 세부적인 관심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시간 및 지속기간이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며, 얼마나 오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업 및 기타 다른 생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Mortimer, et al., 1994). 김기현(2003)은 주당 노동시간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고, 문성호(2003)도 주당 노동시간 및 지속정도와 비행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유성렬(2005)도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 주당 근무일수 및 일일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비행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한 바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부적인 관심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환경에 관한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인권침해 등 부당대우는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낮은 임금과 임금체불, 위험한 환경, 부당대우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철위, 2000, 이경상 외, 2006)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정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의 1-4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의 정도, 참여효과, 참여환경(참여정도, 직종, 참여시간 및 지속기간, 임금, 부당대우 등)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특성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가는지 그 중단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분석자료



III.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4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부모의 동의 를 얻어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를 성공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3,697명의 93.3%인 3,449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4명 이었다.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2.4%인 3,18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3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6%인 3,12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4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5%인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보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측정한 자료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정확한 가구수입 등을 알지 못해서 측정의 오류가 많았던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을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서울특별시	587	573	528	89.9%	92.1%
인천광역시	199	196	185	93.0%	94.4%
경기도	773	765	675	87.3%	88.2%
강원도	123	123	103	83.7%	83.7%
대전광역시	102	102	99	97.1%	97.1%
충청도	255	254	245	96.1%	96.5%
광주광역시	137	136	132	96.4%	97.1%
전라도	249	247	231	92.8%	93.5%
부산광역시	255	253	246	96.5%	97.2%
울산광역시	106	106	105	99.1%	99.1%
대구광역시	212	212	201	94.8%	94.8%
경상도	451	450	438	97.1%	97.3%
합계	3,449	3,417	3,188	92.4%	93.3%

1) 전학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88명)의 비율: 92.4%
-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88명)의 비율: 93.3%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1%
-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9%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600	584	520	86.7%	89.0%
인천광역시	198	191	175	88.4%	91.6%
경기도	775	761	685	88.4%	90.0%
강원도	121	119	107	88.4%	89.9%
대전광역시	102	101	97	95.1%	96.0%
충청도	249	247	237	95.2%	96.0%
광주광역시	138	137	124	89.9%	90.5%
전라도	241	238	221	91.7%	92.9%
부산광역시	254	250	234	92.1%	93.6%
울산광역시	108	107	105	97.2%	98.1%
대구광역시	215	214	190	88.4%	88.8%
경상도	446	442	429	96.2%	97.1%
제주도	2	2	1	50.0%	50.0%
합계	3,449	3,393	3,125	90.6%	92.1%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0.6%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2.1%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89.3%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90.8%

<표 III-3> 중2 패널 4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597	573	503	84.3%	87.8%
인천광역시	199	190	174	87.4%	91.6%
경기도	784	762	689	87.9%	90.4%
강원도	121	120	114	94.2%	95.0%
대전광역시	100	96	94	94.0%	97.9%
충청도	248	242	237	95.6%	97.9%
광주광역시	136	134	129	94.9%	96.3%
전라도	240	234	220	91.7%	94.0%
부산광역시	257	252	235	91.4%	93.3%
울산광역시	108	105	104	96.3%	99.0%
대구광역시	216	213	194	89.8%	91.1%
경상도	441	435	426	96.6%	97.9%
제주도	2	2	2	100.0%	100.0%
합계	3,449	3,358	3,121	90.5%	92.9%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21명)의 비율 : 90.5%

※ 조사가능 패널수(3,358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21명)의 비율 : 92.9%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077명)의 비율 : 89.2%

※ 조사가능 패널수(3,358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077명)의 비율 : 91.6%

IV. 분석결과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효과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
4.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특성

IV.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4년 동안 나타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1차년도에 총3,4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당초 3,449명 가운데 각각 3,188명, 3,12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인 4차년도에는 3,121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90.5%의 표본 유지율(sample retention rate)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회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은 전체 3,449명 가운데 2,910명으로 1차년도 응답자의 84.4%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패널조사에서 자의든 타의든 탈락하는 학생들과 더불어 일부 학생들은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년간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2,910명의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거나 적다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표 IV-1>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얼마나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4년의 시기 모두 두 집단의 아르바이트 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1차년도에 자료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14.7%인 반면, 자료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15.2%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각 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자료 분석 포함 여부와의
관계

포함여부	1차시기			2차시기		
	W	NW	계	W	NW	계
포함	428 (14.7)	2,482 (85.3)	2,910	333 (11.4)	2,577 (88.6)	2,910
비포함	82 (15.2)	457 (84.8)	539	31 (11.2)	247 (88.8)	278
계	510	2,939	3,449	364	2,910	3,188
χ^2	.761			.884		

포함여부	3차시기			4차시기		
	W	NW	계	W	NW	계
포함	345 (11.9)	2,560 (88.1)	2,905	433 (14.9)	2,477 (85.1)	2,910
비포함	34 (15.8)	181 (84.2)	215	35 (16.6)	176 (83.4)	211
계	379	2,741	3,120	468	2,653	3,121
χ^2	.088			.502		

1) W =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NW =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2차년도에는 11.4%와 11.2%, 3차년도에는 11.9%와 15.8%, 4차년도에는 14.9%와 16.6%로 한번이라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조금씩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포함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우선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귀하는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파트타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하여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표 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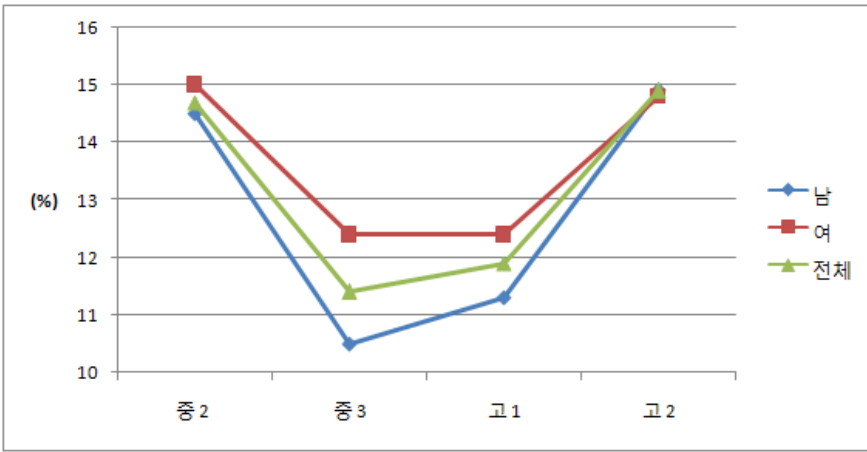
<표 IV-2>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N=2,910)

	중 2	중 3	고 1	고 2
남	210(14.5)	152(10.5)	164(11.3)	217(14.9)
여	218(15.0)	181(12.4)	181(12.4)	216(14.8)
계	428(14.7)	333(11.4)	345(11.9)	433(14.9)

주: 표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시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임
()안은 2,910명을 기준으로 하는 백분율임

4년 모두 조사에 참여한 학생 2,910명(남자 1,450명, 여자 1,455명) 가운데 14.7%에 해당하는 428명이 1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시기는 333명,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345명으로 약간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인 4차년도에는 433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추세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그림 IV-1> 참조), 중학교 2학년 시기의 남녀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는 0.5%에 불과하였지만,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이 차이가 1.9%,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1.1%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차년도에는 두 집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4차년도에 이르러서는 남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4년간 아르바이트 참여 변화 추이



<표 IV-3>은 각 조사년도에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횟수를 합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4년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65.9%는 매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 4년간 아르바이트 참여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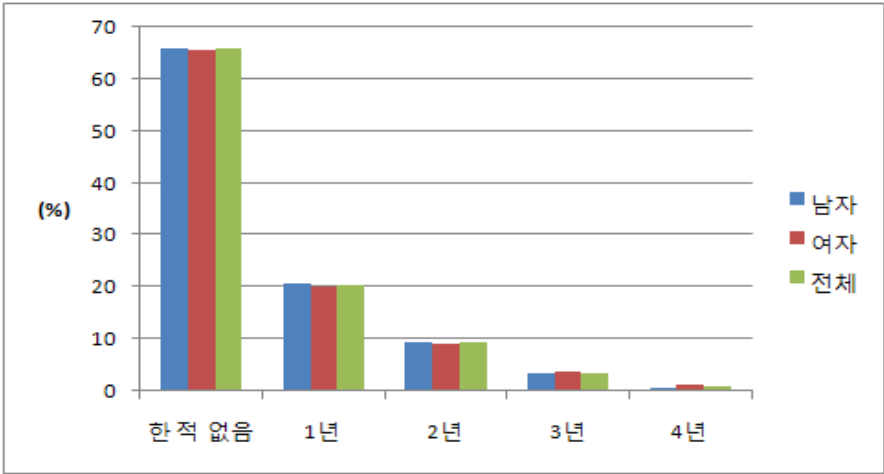
4년간 경험 여부	남자	여자	전체
한 적 없음	959(66.0)	955(65.6)	1914(65.9)
1년	301(20.8)	293(20.1)	594(20.4)
2년	135(9.3)	134(9.2)	269(9.3)
3년	48(3.3)	57(3.9)	105(3.6)
4년	7(0.5)	16(1.1)	23(0.8)
계	1450	1455	2905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즉 조사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이 65.9%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적어도 1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34.1%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학업부담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추정하더라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1/3 이상이 학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이제 일부 빈곤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에만 국한된 현상으로 보기에는 그 참여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4년간 아르바이트 참여 지속 여부



이와 더불어 4년의 기간 동안 한 해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약 20% 가량으로 나타났고,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0.8%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그림 IV-2> 참조). 특히 여학생들 가운데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인 반면, 남학생은 0.5%에 머무르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효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참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직업성숙, 학업성적,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적인 관심은 청소년들의 1/3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직업체험적, 진로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가이다. <표 IV-4>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직업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부교육, 모교육, 가구소득, 고교유형, 전년도 직업성숙도를 통제하고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각 시기별 직업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3 시기에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청소년들의 직업성숙도에 미약한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고1 시기와 고2 시기에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청소년들의 직업성숙도에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경은·이혜경(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진로교육적 차원에서의 직업체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전단지 돌리기, 신문배달, 음식점 카운터 서빙, 주유소 주유원 등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체험적 업종보다는 단순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참여를 통해 직업체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적 직종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많이 보급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V-4>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직업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변 수	중3	고1	고2
	Beta	Beta	Beta
성별	-.069***	-.037*	-.025
부교육	.010	.016	.008
모교육	.001	.012	.031
가구소득	.031	.048*	.012
고교유형	-	.013	.032
전년도 직업성숙도	.408***	.460***	.429***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045*	-.015	-.003
당해 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031	-.025	.004
N	2,243	2,291	2,366
R ²	.178***	.226***	.193***

* p < .05, ** p < .01, *** p < .001

오히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흡연, 음주 등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부교육, 모교육, 가구소득, 고교유형, 전년도 흡연을 통제변수로 하고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각 시기별 흡연행위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표 IV-6>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부교육, 모교육, 가구소득, 고교유형, 전년도 음주를 통제하고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각 시기별 음주행위의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흡연에 대한 분석결과부터 살펴보면, 고1시기 전년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면, 중3 시기, 고1 시기, 고2 시기 전 시기에 걸쳐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청소년들의 흡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비해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분석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3, 고1, 고2 시기 전 기간에 걸쳐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직종, 근로환경, 임금 등이 사회적 통제의 약화, 지위비행 학습의 기회 증대, 기회구조의 증대 등 청소년들이 지위비행을 경험할 다양한 조건을 제공한 결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표 IV-5>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흡연)

변 수	중3	고1	고2
	Exp(B)	Exp(B)	Exp(B)
성별	1.242	2.622***	2.602***
부교육	.961	.993	1.071*
모교육	1.059	1.002	1.018
가구소득	.999	1.000	1.000
고교유형	—	.469***	.517***
전년도 흡연	14.745***	17.167***	20.718***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1.652**	1.442	1.582*
당해 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2.285***	2.107***	3.103***
상수	.041***	.054***	.016***
N	2,870	2,775	2,740
-2Log-Likelihood	1424.154	1413.421	1428.891
Cox와 Snell의 R2	.141	.162	.220
Nagelkerke의 R2	.296	.327	.409

* $p < .05$, ** $p < .01$, *** $p < .001$

<표 IV-6>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음주)

변 수	중3	고1	고2
	Exp(B)	Exp(B)	Exp(B)
성별	.898	1.082	1.327***
부교육	1.019	.998	.991
모교육	.990	.990	1.012
가구소득	1.000	.999*	1.000
고교유형	—	.690***	.703**
전년도 음주	7.336***	4.643***	6.202***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1.313*	1.437**	1.502**
당해 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2.254***	1.779***	1.888***
상수	.143***	.560**	.449***
N	2,870	2,775	2,740
-2Log-Likelihood	2827.837	3233.087	3162.787
Cox와 Snell의 R2	.185	.135	.199
Nagelkerke의 R2	.266	.184	.266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시기별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부교육, 모교육, 가구소득, 고교유형, 전년도 학업성적 을 통제변수로 하고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각 시기별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3시기에 당해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업성적에 약간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업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변 수	중3	고1	고2
	Beta	Beta	Beta
성별	.038**	.004	-.012
부교육	.046*	.032	.036
모교육	.025	.050*	.009
가구소득	.021	.023	.064**
고교유형	-	-.206***	-.005
전년도 학업성적	.716***	.566***	.593***
전년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009	.007	.019
당해 연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040**	-.033	-.035
N	2,632	2,639	1,490
R ²	.569***	.289***	.385***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

본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몇 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는지를 질문하였는데 <표 IV-8>과 <그림 IV-3>은 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1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횟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년

간 1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50.1% 수준이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66.7%로 전체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중 2/3가 1회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지난 1년간 2회 혹은 3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특히 4회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9.1%에서 10.4%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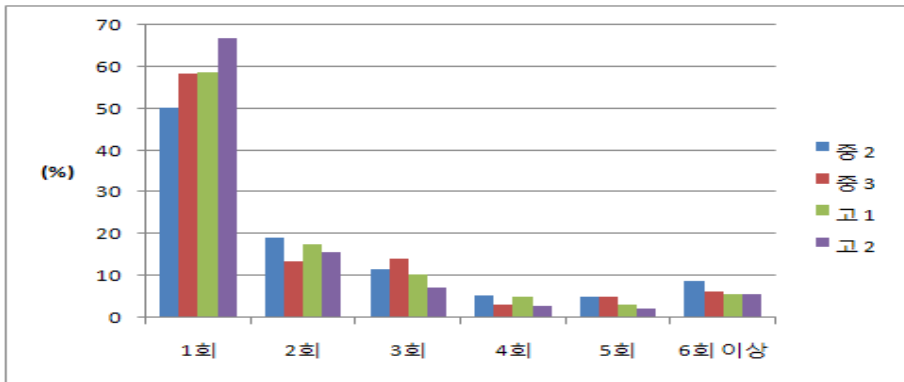
또한 남학생의 경우 4회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에서 12%로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18%에서 8.9%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4회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보다는 한두 가지의 아르바이트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8> 시기별 1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구분	횟수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1회	211(50.1)	189(58.2)	188(58.6)	289(66.7)
	2회	81(19.2)	44(13.5)	56(17.4)	68(15.7)
	3회	49(11.6)	46(14.2)	33(10.3)	31(7.2)
	4회	22(5.2)	10(3.1)	16(5.0)	12(2.8)
	5회	21(5.0)	16(4.9)	10(3.1)	9(2.1)
	6회 이상	37(8.9)	20(6.1)	18(5.6)	24(5.5)
	계	421	325	321	433
남자	1회	97(47.5)	84(56.8)	86(55.8)	142(65.4)
	2회	43(21.1)	19(12.8)	30(19.5)	34(15.7)
	3회	23(11.3)	22(14.9)	15(9.7)	15(6.9)
	4회	5(2.5)	6(4.1)	10(6.5)	6(2.8)
	5회	15(7.4)	10(6.8)	5(3.2)	6(2.8)
	6회 이상	21(10.2)	7(4.6)	8(5.3)	18(6.4)
	계	204	148	154	217
여자	1회	114(52.5)	105(59.3)	102(61.1)	147(68.1)
	2회	38(17.5)	25(14.1)	26(15.6)	34(15.7)
	3회	26(12.0)	24(13.6)	18(10.8)	16(7.4)
	4회	17(7.8)	4(2.3)	6(3.6)	6(2.8)
	5회	6(2.8)	6(3.4)	5(3.0)	3(1.4)
	6회 이상	16(7.4)	13(7.3)	10(5.9)	10(4.7)
	계	217	177	167	216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림 IV-3> 시기별 1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변화(유경험자 전체)



4.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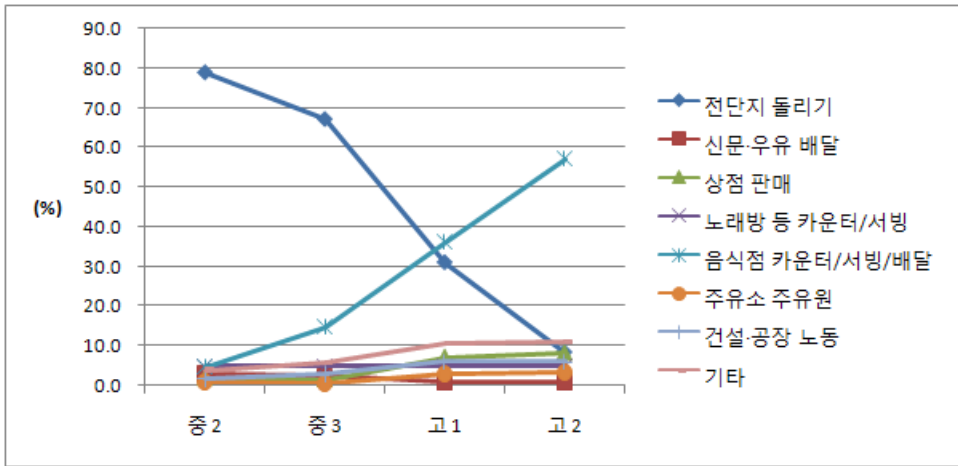
<표 IV-9>와 <그림 IV-4>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전단지 돌리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변하여 매년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약 80%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수치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8.3%로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횟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의 전단지 돌리기 직종으로부터의 탈피가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시기별 아르바이트 직종

구분	직 종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전단지 돌리기	338(79.0)	221(67.2)	107(31.0)	36(8.3)
	신문·우유 배달	13(3.0)	8(2.4)	3(0.9)	4(0.9)
	상점 판매	8(1.9)	5(1.5)	25(7.2)	36(8.3)
	노래방 등 카운터/서빙	21(4.9)	16(4.9)	17(4.9)	21(4.8)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	20(4.7)	48(14.6)	125(36.2)	247(57.0)
	주유소 주유원	4(0.9)	2(0.6)	10(2.9)	15(3.5)
	건설·공장 노동	7(1.6)	10(3.0)	21(6.1)	26(6.0)
	기타	17(4.0)	19(5.8)	37(10.7)	48(11.1)
	계	428	329	345	433
남자	전단지 돌리기	156(74.3)	102(68.5)	63(38.4)	23(10.6)
	신문·우유 배달	11(5.2)	7(4.7)	2(1.2)	3(1.4)
	상점 판매	2(1.0)	1(0.7)	7(4.3)	10(4.6)
	노래방 등 카운터/서빙	8(3.8)	9(6.0)	8(4.9)	15(6.9)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	13(6.2)	17(11.4)	49(29.9)	105(48.4)
	주유소 주유원	4(1.9)	2(1.3)	6(3.7)	9(4.1)
	건설·공장 노동	7(3.3)	6(4.0)	15(9.1)	23(10.6)
	기타	9(4.3)	5(3.4)	14(8.5)	29(13.4)
	계	210	149	164	217
여자	전단지 돌리기	182(83.5)	119(66.1)	44(24.3)	13(6.0)
	신문·우유 배달	2(0.9)	1(0.6)	1(0.6)	1(0.5)
	상점 판매	6(2.8)	4(2.2)	18(9.9)	26(12.0)
	노래방 등 카운터/서빙	13(6.0)	7(3.9)	9(5.0)	6(2.8)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	7(3.2)	31(17.2)	76(42.0)	142(65.7)
	주유소 주유원	0	0	4(2.2)	6(2.8)
	건설·공장 노동	0	4(2.2)	6(3.3)	3(1.4)
	기타	8(3.7)	14(7.8)	23(12.7)	19(8.8)
	계	218	180	181	216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림 IV-4> 아르바이트 직종 변화 추이



이와 더불어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은 음식점 등에서 카운터/서빙/배달임을 알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이 직종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5%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남녀 각각 48.4%, 65.7%로 나타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이 직종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전단지 돌리기는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관문의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단지 돌리기는 다른 직종과 달리 작업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음과 동시에 성인의 관리 감독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중학교 2학년들이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직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 물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 중학교 3학년 시기를 지나면서, 전단지 돌리기는 직종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성인들의 감독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직종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주들이 작업의 성격 상 중학생들보다는 상당 수준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단지 돌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도가

높은 직종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른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남학생들의 경우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과 더불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직종이 건설·공장 노동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의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상점 등에서의 판매에 참여하는 비중도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래방 등에서의 카운터/서빙 일을 한 남학생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한 반면, 여학생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음식점에서의 일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상황에서 여학생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진출이 높게 나타나 직업과 관련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기타 직종에의 참여 비율이 13.4%인 반면, 여학생들은 8.8%에 머물러 청소년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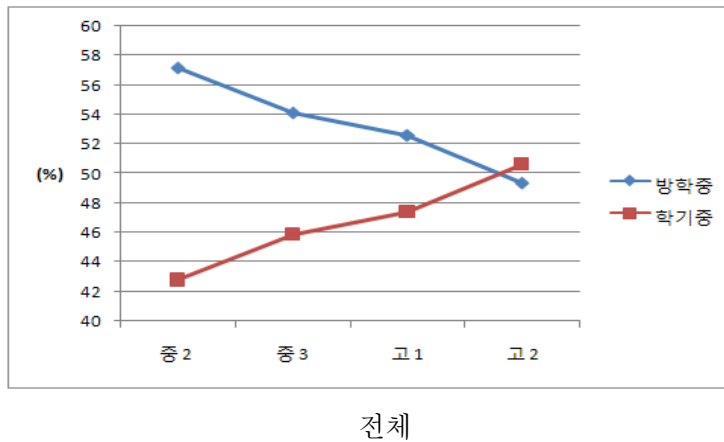
<표 IV-10>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기에 관한 질문의 응답을 정리한 표이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학기 중 보다는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7% 정도 높게 나타났다으나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학기 중에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약 5%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학업에 덜 영향을 받는 방학 중에 일을 하였지만,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였고 따라서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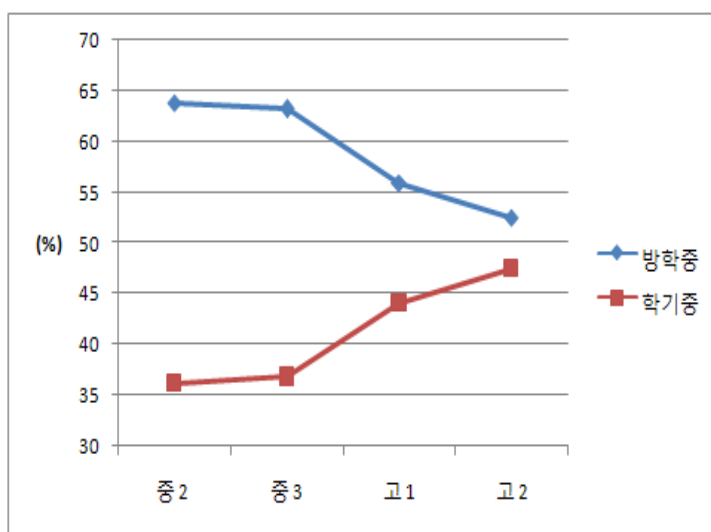
<표 IV-10> 시기별 아르바이트 시작 시점

구분	시기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방학 중	245(57.2)	180(54.1)	181(52.6)	214(49.4)
	학기 중	183(42.8)	153(45.9)	163(47.4)	219(50.6)
	계	428	333	344	433
남자	방학 중	134(63.8)	96(63.2)	91(55.9)	114(52.5)
	학기 중	76(36.2)	56(36.8)	72(44.1)	103(47.5)
	계	210	152	163	217
여자	방학 중	111(50.9)	84(46.4)	90(49.7)	100(46.3)
	학기 중	107(49.1)	97(53.6)	91(50.3)	116(53.7)
	계	218	181	181	2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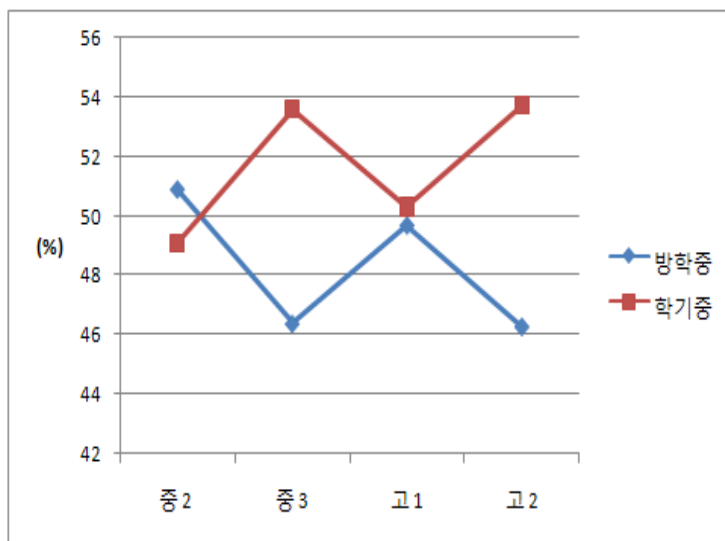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림 IV-5>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기





남학생



여학생

<그림 IV-5>는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가 남녀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이와 매우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조금 더 많게 나타났지만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는 상당수가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과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의든 타의에 의해서든 여학생들이 더 많이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1>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이르면서 성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 근사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시기에 72.6%에 달한 반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32.1%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21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15.9%에 불과하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거의 3배에 달하는 57.3%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 IV-6>은 이러한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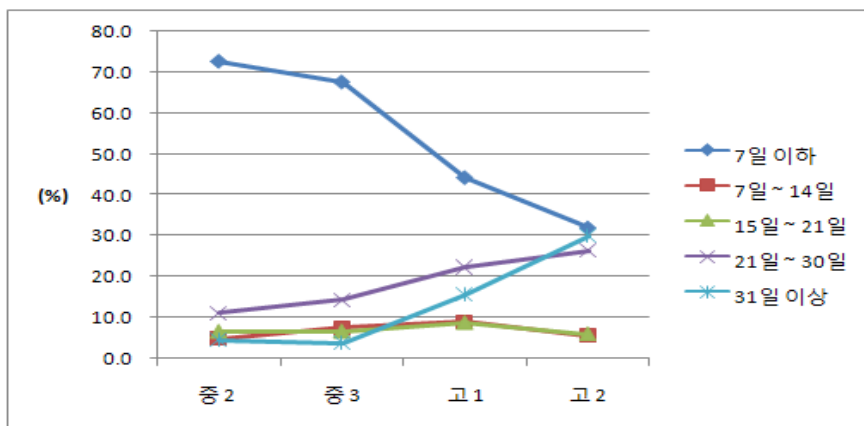
이를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르바이트 횟수의 변화 추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성장과 함께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성장해 감에 따라 비교적 소수의 아르바이트에서 장기간 노동하는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 등의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부터 특정 작업장에서 비교적 장기간 노동에 참여하는 성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1> 시기별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구분	기간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7일 이하	310(72.6)	225(67.6)	153(44.3)	139(32.1)
	7일 ~ 14일	21(4.9)	25(7.5)	31(9.0)	24(5.5)
	15일 ~ 21일	28(6.6)	22(6.6)	30(8.7)	26(6.0)
	21일 ~ 30일	48(11.2)	48(14.4)	77(22.3)	114(26.3)
	31일 이상	20(4.7)	13(3.9)	54(15.7)	130(31.0)
	계	427	333	345	433
남자	7일 이하	148(70.5)	102(67.1)	74(45.1)	72(33.2)
	7일 ~ 14일	10(4.8)	7(4.6)	14(8.5)	13(6.0)
	15일 ~ 21일	13(6.2)	13(8.6)	17(10.4)	12(5.5)
	21일 ~ 30일	29(13.8)	26(17.1)	35(21.3)	55(25.3)
	31일 이상	10(4.8)	4(2.6)	24(14.6)	65(30.0)
	계	210	152	164	217
여자	7일 이하	162(74.7)	123(68.0)	79(43.6)	67(31.0)
	7일 ~ 14일	11(5.1)	18(9.9)	17(9.4)	11(5.1)
	15일 ~ 21일	15(6.9)	9(5.0)	13(7.2)	14(6.5)
	21일 ~ 30일	19(8.8)	22(12.2)	42(23.2)	59(27.3)
	31일 이상	10(4.6)	3(1.7)	30(16.6)	65(30.1)
	계	217	181	181	216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림 IV-6> 각 시기별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의 변화 추이



<표 IV-12>와 <그림 IV-7>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주당 작업 일수에 대한 응답에 대한 조사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당 1~2일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63%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40.6%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주당 5일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에서 46.7%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7일 내내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중학교 2학년 시기의 8.3%에서 24.5%로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주당 1~2일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 62%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38.8%로 감소한 반면 주당 5일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에서 48.8%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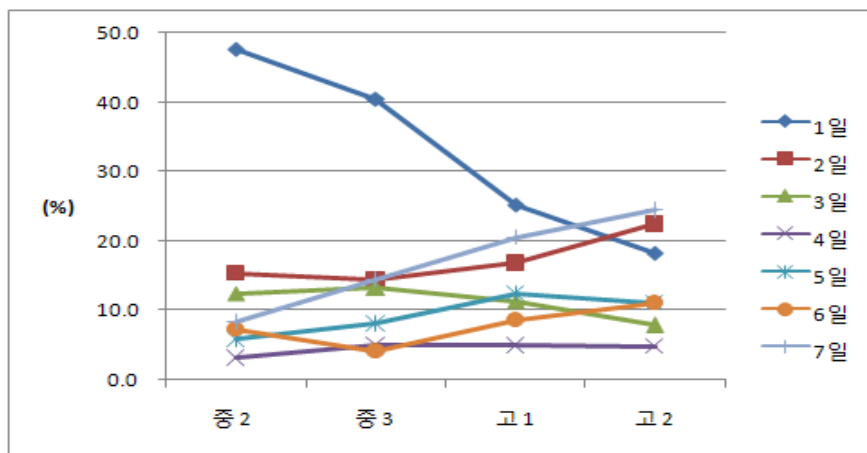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성인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두 가지 직종에서 비교적 장기간 일을 함과 동시에 주당 근무 일수도 5일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 강도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2> 시기별 일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한 일수

구분	일수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1일	196(47.7)	135(40.5)	87(25.2)	79(18.2)
	2일	63(15.3)	48(14.4)	58(16.8)	97(22.4)
	3일	51(12.4)	44(13.2)	39(11.3)	34(7.9)
	4일	13(3.2)	17(5.1)	17(4.9)	21(4.8)
	5일	24(5.8)	27(8.1)	43(12.5)	48(11.1)
	6일	30(7.3)	14(4.2)	30(8.7)	48(11.1)
	7일	34(8.3)	48(14.4)	71(20.6)	106(24.5)
	계	411	333	345	433
남자	1일	102(49.8)	62(40.8)	38(23.2)	42(19.4)
	2일	25(12.2)	20(13.2)	26(15.9)	42(19.4)
	3일	22(10.7)	22(14.5)	18(11.0)	17(7.8)
	4일	7(3.4)	6(3.9)	10(6.1)	10(4.6)
	5일	15(7.3)	14(9.2)	17(10.4)	23(10.6)
	6일	20(9.8)	7(4.6)	14(8.5)	25(11.5)
	7일	14(6.8)	21(13.8)	41(25.0)	58(26.7)
	계	205	152	164	217
여자	1일	94(45.6)	73(40.3)	49(27.1)	37(17.1)
	2일	38(18.4)	28(15.5)	32(17.7)	55(25.5)
	3일	29(14.1)	22(12.2)	21(11.6)	17(7.9)
	4일	6(2.9)	11(6.1)	7(3.9)	11(5.1)
	5일	9(4.4)	13(7.2)	26(14.4)	25(11.6)
	6일	10(4.9)	7(3.9)	16(8.8)	23(10.6)
	7일	20(9.7)	27(14.9)	30(16.6)	48(22.2)
	계	206	181	181	216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림 IV-7> 주당 아르바이트 작업 일수의 변화 추이



이러한 경향은 일일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의 경우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3>과 <그림 IV-8>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였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하루에 1~4시간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81.3%로 전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4/5를 차지하였지만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그 수치가 23.1%로 급감하여 1/5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5~8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같은 기간 동안 14.3%에서 4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4.4%에서 28.6%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8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32.3%인 반면, 여학생은 25%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일일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묻는 문항이 주말과 주중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중 보다는 주말에 더 장시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일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한 응답이 주말 동안의 아르바이트 시간인지 혹은 주중의 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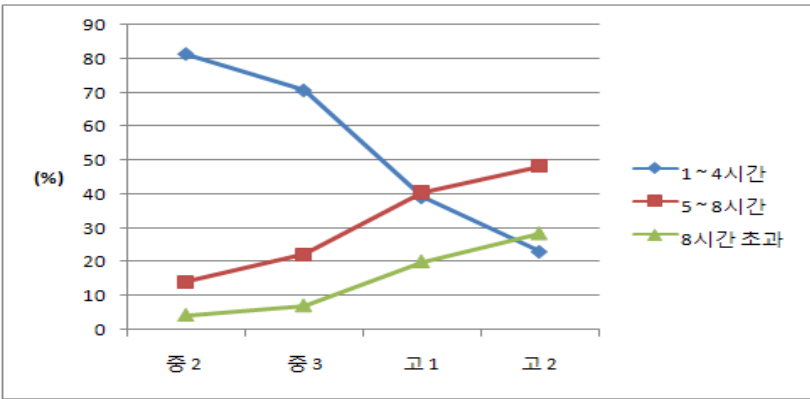
바이트 시간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를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 IV-13> 시기별 일일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

구분	시간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1 ~ 4시간	348(81.3)	235(70.6)	135(39.1)	100(23.1)
	5 ~ 8시간	61(14.3)	74(22.2)	140(40.6)	209(48.3)
	8시간 초과	19(4.4)	24(7.2)	70(20.3)	124(28.6)
	계	428	333	345	433
남자	1 ~ 4시간	170(81.0)	124(81.6)	66(40.2)	46(21.2)
	5 ~ 8시간	29(13.8)	21(13.8)	70(42.7)	101(46.5)
	8시간 초과	11(5.2)	7(4.6)	28(17.1)	70(32.3)
	계	210	152	164	217
여자	1 ~ 4시간	178(81.7)	111(61.3)	69(38.1)	54(25.0)
	5 ~ 8시간	32(14.7)	53(29.3)	70(38.7)	108(50.0)
	8시간 초과	8(3.6)	17(4.4)	42(23.2)	54(25.0)
	계	218	181	181	216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림 IV-8> 일일 근무시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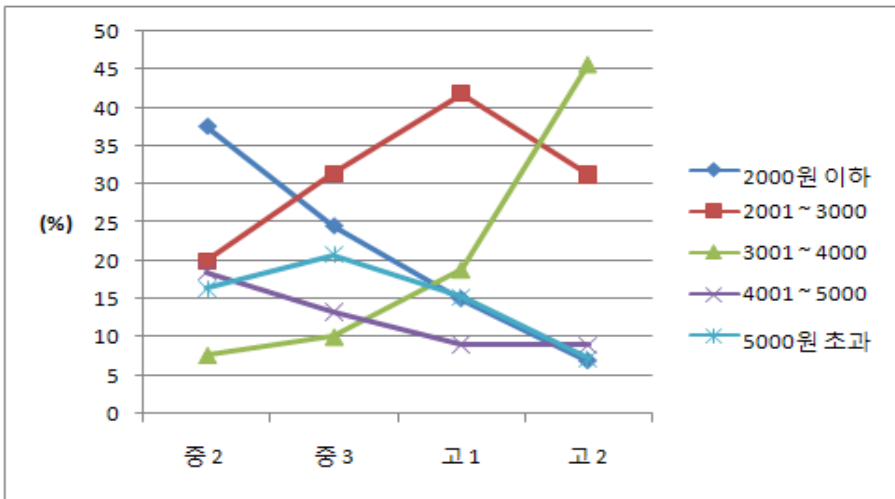
<표 IV-14>는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시간당 임금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14>에서 나타나는 유형 가운데 하나는 시간당 2,000원 이하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시간당 2,000원 이하를 받은 학생이 37.5%인 반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6.9%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임금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당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임금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학교 2학년 시기에 7.6%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무려 45.7%로 증가하였다(<그림 IV-9> 참조).

<표 IV-14> 시기별 아르바이트 시간당 임금

구분	금액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2,000원 이하	158(37.5)	81(24.5)	51(15.0)	30(6.9)
	2,001 ~ 3,000	84(20.0)	104(31.4)	142(41.8)	135(31.2)
	3,001 ~ 4,000	32(7.6)	33(10.0)	64(18.8)	198(45.7)
	4,001 ~ 5,000	78(18.5)	44(13.3)	31(9.1)	39(9.0)
	5,000원 초과	69(16.4)	69(20.8)	52(15.3)	31(7.2)
	계	421	331	340	433
남자	2,000원 이하	79(38.1)	29(19.1)	20(12.3)	12(5.5)
	2,001 ~ 3,000	43(20.8)	45(29.6)	62(38.3)	43(19.8)
	3,001 ~ 4,000	11(5.3)	15(9.9)	33(20.4)	115(53.0)
	4,001 ~ 5,000	38(18.4)	25(16.4)	20(12.3)	23(10.6)
	5,000원 초과	36(17.4)	38(25.0)	27(16.7)	24(11.1)
	계	207	152	162	217
여자	2,000원 이하	79(36.9)	52(29.0)	31(17.4)	18(8.3)
	2,001 ~ 3,000	41(19.2)	59(33.0)	80(44.9)	92(42.6)
	3,001 ~ 4,000	21(9.8)	18(10.1)	31(17.4)	83(38.4)
	4,001 ~ 5,000	40(18.7)	19(10.6)	11(6.2)	16(7.4)
	5,000원 초과	33(15.4)	31(17.3)	25(14.1)	7(3.3)
	계	214	179	178	216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림 IV-9> 시간당 임금의 변화 추이



이러한 경향은 크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연령 및 직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학교 2학년 시기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한 직종은 전단지 돌리기로서 일회성 성격의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전단지 돌리기 등의 일에 집중되어 있던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특정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고용주들의 시각도 함께 변화하여 법정 최저임금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14>에서 나타난 유형 가운데 하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임금 분포에 있어서 관찰되는 차이이다. 즉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남학생의 경우 3,000원과 4,000원 사이의 임금을 받은 비율이 53%에 달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이보다 약 15% 가량 적은 38.4%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4,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은 학생의 비율도 남학생의 경우는 21.7%인 반면, 여학생은 그 절반 정도인 10.7%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존재하거나, 다른 하나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직종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학생들은 음식점 등에서의 서빙 등과 상점에서의 판매 등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음식점 등에서의 서빙과 함께 건설·공장 노동 및 기타 직종에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서의 차이가 남녀간의 임금의 차이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15>와 <그림 IV-10>은 각 시기별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구별없이 “용돈이 부족해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4년 동안의 조사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응답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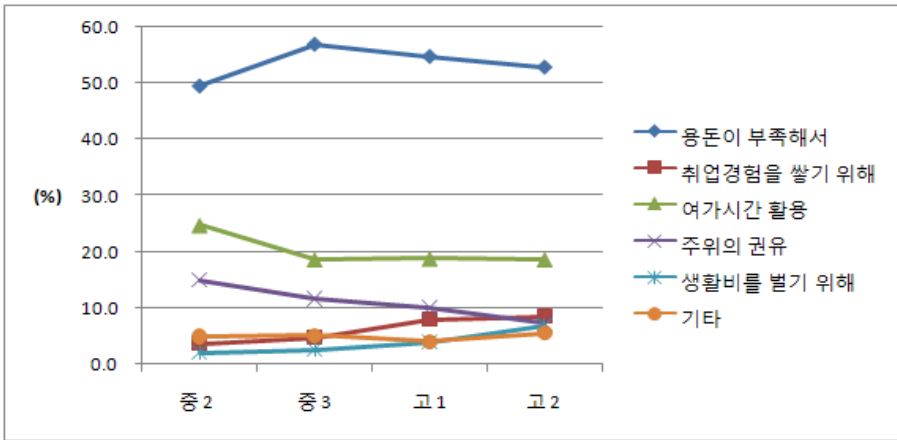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기본적으로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대사회의 소비 중심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기할 것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2.1%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6.9%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생계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V-15> 시기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구분	이유	중 2	중 3	고 1	고 2
전체	용돈이 부족해서	212(49.5)	189(56.9)	189(54.8)	229(52.9)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16(3.7)	16(4.8)	28(8.1)	37(8.5)
	여가시간 활용	106(24.8)	62(18.7)	65(18.8)	81(18.7)
	주위의 권유	64(15.0)	39(11.7)	35(10.1)	32(7.4)
	생활비를 벌기 위해	9(2.1)	9(2.7)	14(4.1)	30(6.9)
	기타	21(4.9)	17(5.1)	14(4.1)	24(5.5)
	계	428	332	345	433
남자	용돈이 부족해서	96(45.7)	78(51.3)	86(52.4)	109(50.2)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10(4.8)	10(6.6)	14(8.5)	14(6.5)
	여가시간 활용	58(27.6)	30(19.7)	30(18.3)	46(21.2)
	주위의 권유	33(15.7)	23(15.1)	19(11.6)	16(7.4)
	생활비를 벌기 위해	2(1.0)	7(4.6)	9(5.5)	19(8.8)
	기타	11(5.2)	4(2.6)	6(3.7)	13(6.0)
	계	210	152	164	217
여자	용돈이 부족해서	116(53.2)	111(61.7)	103(56.9)	120(55.6)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6(2.8)	6(3.3)	14(7.7)	23(10.6)
	여가시간 활용	48(22.0)	32(17.8)	35(19.3)	35(16.2)
	주위의 권유	31(14.2)	16(8.9)	16(8.8)	16(7.4)
	생활비를 벌기 위해	7(3.2)	2(1.1)	5(2.8)	11(5.1)
	기타	10(4.6)	13(7.2)	8(4.4)	11(5.1)
	계	218	180	181	216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그림 IV-10> 아르바이트 시작 이유의 변화 추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임금 체불이나 작업 환경 등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6>에 제시되어 있다. 총 9가지의 부당 경험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7.6%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24.5%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과 관련한 부당 경험은 1차 조사에서 모두 22.8% 수준이었으나 고등학교 4차 조사에서는 19.4%로 소폭 감소하였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이 작업 중 다쳤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오히려 작업 중 다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작업장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고등학교 2학년 시기로 오면서 점차 증가하였으며, “폭언이나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약 1%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 문항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작업장에서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16> 시기별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경험 실태

부 당 한 경 험	중 2	중 3	고 1	고 2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54(12.6)	50(13.0)	42(12.1)	44(10.2)
야근 혹은 휴일 근무 후 수당을 받지 못했다	11(2.1)	14(4.2)	21(6.1)	11(2.8)
계약시간 초과 근무 후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35(8.1)	27(8.1)	33(9.6)	28(6.4)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8(4.2)	20(6.0)	22(6.3)	22(5.1)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34(7.9)	30(9.0)	39(11.3)	65(15.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75(17.6)	38(11.4)	49(14.2)	106(24.5)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26(3.7)	15(4.5)	36(10.4)	37(8.6)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5(1.2)	7(2.1)	8(2.3)	2(0.4)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2(0.4)	8(2.4)	3(0.9)	3(0.7)
계	428	333	345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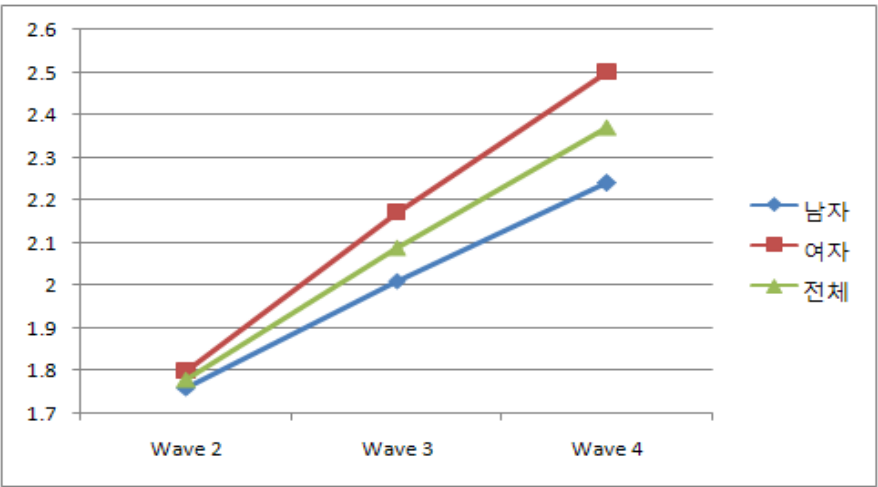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표 IV-16>의 결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교육과 예방 및 대처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임금과 관련한 문제, 작업장에서의 안전, 비인간적인 대우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역할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이 성인 고용주들의 횡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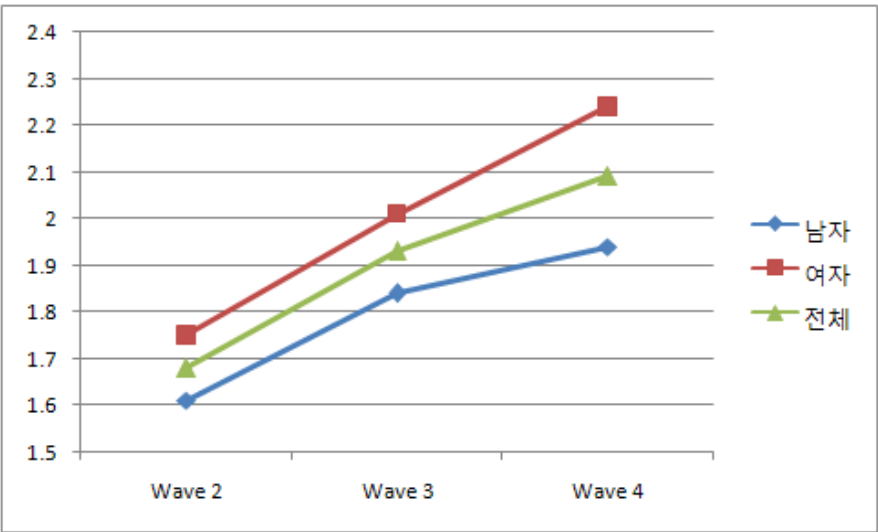
한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인 2차년도부터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는지, 숙제를 제 때에 해가지 못한 적이 있는지,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는지와 친한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응답자들은 이 4가지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1)” 부터 “매우 그렇다(5)” 의 5점 척도로 응답하였는데 <그림 IV-11>은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로 오면서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의 평균값이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나머지 3개의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 보다는 1~2개 정도의 직종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바이트로 인한 부정적 경험의 정도는 이러한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개의 문항 모두에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 생활이나 친구를 만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 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시간 투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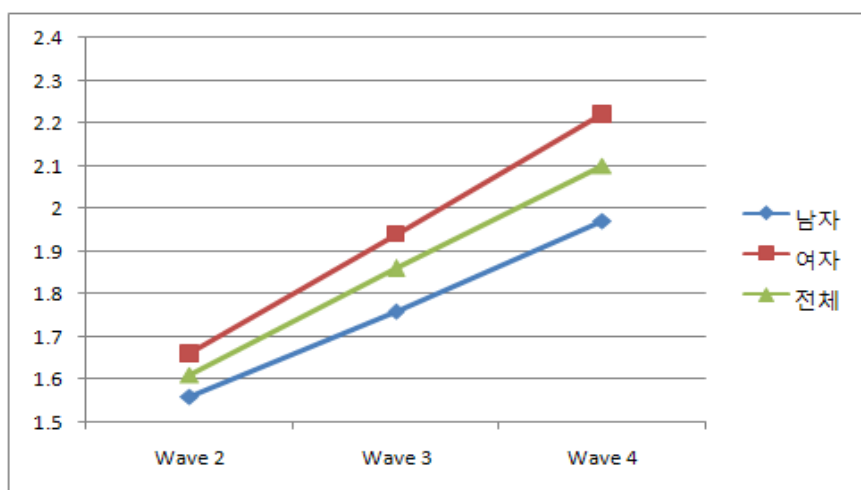
<그림 IV-11>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대한 아르바이트의 영향 인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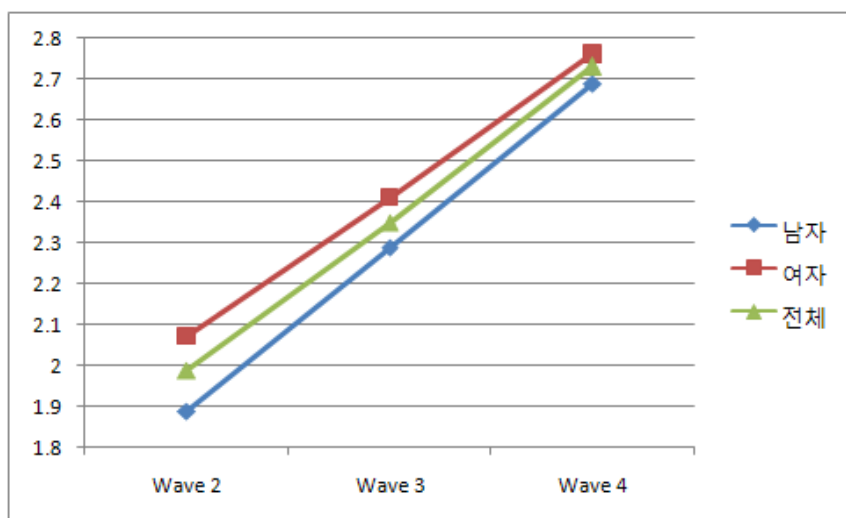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한 적이 있다”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4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4년 동안 나타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4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에 총 3,4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래 2차년도 3,188명, 3차년도 3,125명, 4차년도에는 3,121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90.5%의 표본 유지율(sample retention rate)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4회까지 연속적으로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은 2,910명으로 1차년도 응답자의 84.4%이다. 이 연구에서는 4년간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유무의 분포를 살펴보면, 4년 모두 조사에 참여한 학생 2,910명(남자 1,450명, 여자 1,455명) 가운데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적어도 1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3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의 1/3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제 일부 빈곤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일반화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참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직업성숙, 학업성적,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직업성숙 등 진로교육적 효과보다는 지위비행 등에 미

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1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시기 50.1% 수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 66.7%로 늘어나고, 4회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9.1%에서 10.4%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라 1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횟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보다는 한두 가지의 아르바이트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르바이트 참여직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응답자들의 약 80%가 전단지 돌리기를 참여직종으로 응답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8.3%로 현격하게 감소한 반면, 음식점 등에서의 카운터/서빙/배달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5%정도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남녀 각각 48.4%, 65.7%로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이 직종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시기 72.6%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32.1%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21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2학년 시기 15.9%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57.3%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 등의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부터 특정 작업장에서 비교적 장기간 노동에 참여하는 성인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임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시간당 2,000원 이하를 받은 학생이 37.5%인 반면,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6.9%로 감소하였다. 반면 시간당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임금을 받

은 학생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학교 2학년 시기에 7.6%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무려 45.7%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대우 경험을 살펴보면, 총 9가지의 부당 경험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7.6%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24.5%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이 작업 중 다쳤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오히려 작업 중 다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작업장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고등학교 2학년 시기로 오면서 점차 증가하였으며, “폭언이나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다양한 교육, 예방 및 대처 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임금과 관련한 문제, 작업장에서의 안전, 비인간적인 대우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역할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로 오면서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 전개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정책적 제언

서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시기는 진로발달단계상 진로탐색 및 준

비시기에 해당되므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학업소홀, 문제행동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진로의식 성숙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정책적 관점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 보호의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청소년 진로교육적, 광의의 인적자원 및 직업능력개발의 적극적인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업과 일의 관계정립에 대한 청소년·교사 교육 전개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전단지 돌리기 중심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서 음식점 서빙 중심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으로 변화하면서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경험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친구관계와 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청소년 시기 진로준비로서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의미부여를 적절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준비로서의 의미가 부여된 아르바이트 참여가 아니라 단순한 용돈벌이 목적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청소년 시기의 주된 본업인 학업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 교우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 친구관계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면서 아르바이트에는 진로준비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학교생활과 일의 관계설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학업과 일의 적절한 관계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 대상 노동교육시에 노동관계법 등 근로보호

교육만 시키지 말고, 청소년들의 학업, 친구관계와 일에 대한 청소년근로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도 근로보호교육외에 청소년 근로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중점 교육 과제로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진로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청소년들의 학업과 일의 적절한 관계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관련 교과교육시간이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이외에 학업, 친구관계, 일의 적절한 관계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의 개선 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 인권 침해 등의 부당대우 경험의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여건 개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의 개선 강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지도점검 강화이다. 현재 노동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청이 2005년 6월 20일부터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만들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위반반복사업장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등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여전히 강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보다 훨씬 빈도가 높은 지도점검 강화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인지도 제고의 강화이다. 현재 일반교사연수과정, 노동교육원 교사연수 등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 Job school, 청소년교실 등을 통한 청소년 대상 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식업,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주 대상 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

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 고용 업주에 대해 빈도높은 교육활동이 전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홍보활동의 강화이다. 현재 관계부처 및 NGO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교사대상 홍보팜플렛 배포, 청소년대상 법정 근로조건 교육용 CD, 관련기관 홈페이지, ‘일하는 1318 알자알자캠페인’, 모바일 상담 ‘1350#1’ 등을 통한 교육 홍보자료 배포, 사업주대상 홍보 팜플렛 배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시 강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정근로조건에 대한 홍보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워크넷,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방법 등 현재보다 훨씬 많은 내용의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구제의 강화이다. 현재 청소년 워크넷,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역시 완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학교 진로상담교사, 모바일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성장단계별 건전 아르바이트 업종 공급의 강화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직업성숙 등 진로교육적 효과보다는 지위비행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이 전단지 돌리기, 음식점 서빙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열악한 업종에 국한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진로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의 개선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교육적인 업종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많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단계별로 청소년들이 참여할만한 건전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 청소년들에게 많은 건전한 일자리들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업종들에게 정부

가 세제혜택 등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업종들이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학교 진로교육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진로교육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학교 진로교육의 틀 속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학교 진로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의 진로탐색 및 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직업탐색부분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르바이트 체험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진로탐색 및 준비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앞에서 언급한 보다 많은 건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공급되고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이들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시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국민일보(2006). 청소년 알바 업소 위법 급증... 최저임금 미지급·초과근무 강요.
<http://www.kukminilbo.co.kr> (2006. 8. 31)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7집 제6호, pp. 115-144.
- 김해동이창한(2002). 청소년 시간제 근로의 정규직으로 가교역할 탐구. 직업교육연구.
 구.
- 김예성(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노동-학업
 간 갈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2호.
- 노동부(2004). 노동부 고시 제2004-23호. <http://www.molab.go.kr> (2005. 10. 1)
- 도종수(2001).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와 대책. 사회복지정책, 제13집. pp.
 104-123.
- 문성호(2003). 학생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0
 권 제3호, pp. 83-103.
- 박창남(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
 호. pp. 207-238.
- 박창남(2004). 청소년노동에서 인권의 의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
 1호. pp. 25-36.
- 박창남(2006).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
 구 제 13권 제5-2호.
-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
 14권 제1호.
- 옥경희(1993).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경험이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 14권 2호.
- 유성경, 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화
 의 광장.
-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255-281.
- 이경상·박창남(200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

청소년연구.

이경상·유성렬·박창남(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서울:청소년개발원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형하·이용교(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2호.

장원섭(1999). 시간제 취업이 고등학생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

장원섭(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 취업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정경은·이혜경(200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2호.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153-180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2000). 학교부적응 실태조사 및 적응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YMCA(2000). 청소년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Barro. S.(1984). *The Incidence of Dropping Out: A Descriptive Analysis*. Washington, DC: Economic Research.

D'Amico. R.(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Vol 57, pp. 152-164.

Entwisle, D. R., K. L. Alexander & L. S. Olson.(2000). Early Work Histories of Urban You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pp279-297

Finch, M. D., Shanahan, M. J., Mortimer, J. T. & Ryu, S.(1991) Work experience and control orientation in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6, pp. 597-611.

Greenberger, E. & Steinberg, L. D.(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employment*. NY: Basic Books

Kohn, M. L., & Schooler, C. (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J: Abex.
- Marsh, H. W. (199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haracter building or a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4, pp. 172–189.
- Maurice, M., F. Sellier & J. J. Siverstre.(1982). *The Social Foundations of Industrial Power*. Cambridge, Mass: MIT Press
- Mcneal. R. B.(1995).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High School Dropout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8, pp. 62–81.
- Mcneal. R. B.(1997). Are students being pulled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dropping out, *Sociology of Education*, Vol 70, pp. 206–220.
- Montimer, J. T. & Finch, M. D.(1986).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Borman, K & Reisman, J. (eds), *Becoming a worker* pp. 66–89. Norwood, NJ:Albex.
- Mortimer, J. T., Finch, M. D., Shanahan, M., & Ryu, S. (1992).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 pp. 25–57.
- Mortimer, J. T., Shanahan, M.J, & Ryu, S.(1994). *The effects of adolescent employment on school-related orientation and behavior*. In R. K. Silvereisen &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 NY: Springer-Verlag pp304–326
- Mortimer, J, T, & Finch, M. D. (1996). *Adolescents, Work, and Family*. CA: Sage Publications.
-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s Work*.
- Pimental, E. E.(1996), Effects of adolescent achievement and family goals on the early adult transition. In Montimer, J. T. & Finch, M. D.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pp 191–220. Thousand Oaks: Sage.
- Quick, K. J.,T. Z. Keith & J. T. Quick.(200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and Student Achievement: Longitudinal Analysis of National

- Dat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5(1), pp4-10
- Rumberger. R. W.(1987). High school dropouts: A review of issues and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7, pp. 101-121.
- Rumberger. R. W.(1995). Dropping out of middle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s and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2. No 3, pp. 583-625.
- Schulenberg, J. & Bachman, J. G.(1993). *Long hours on the job? Not so bad for some adolescence in some types of jobs: The quality of work and substance use, affect, and 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Shanahan, M. J., Mortimer, J. T., Finch, M. D., & Ryu, S. (1991)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depressive affe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4, pp. 299-317.
- Singh, K & M. Ozturk.(2000). Effect of Part-Time Work on High School Mathematics and Science Course Tak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4(2), pp.67-74.
- Steel, L. (1991). Early work experience among white and non-white youth. *Youth and Society*, Vol. 22, pp. 419-447.
- Steinberg, L. D. & Dornbusch, S. M.(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pp. 304-313.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같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광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
 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
 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김
 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mann·Hideki Watanabe·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가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운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구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
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
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중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
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
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수용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혜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a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홍보(주) 전화 (02)737-5377 대표 김규만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85-0(93330)